

# 미국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

## 최 일 복

현시기 미제는 저들을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혈뜯고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69페이지)

지난해 미국은 온 한해동안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범죄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특히 미제와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에 대하여 떠벌이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미국과 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가 저들을 세계의 《인권옹호자》로 자처하기 시작한것은 부르조아적인권이 제창된 때로부터 200여년이 지나간 20세기 중엽부터였다.

나치스도이칠란드와 군국주의일본을 비롯한 파쑈국가들에 의하여 감행되였던 제2차 세계대전이 세계 진보적력량의 승리로 결속된 이후 미제는 불현듯 저들을 《인권옹호자》로 자처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세계제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미제의 음흉하고 교활한 타산이 깔려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었다. 자주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더는 지난날의 로골적인 식민지지배수법과 통치방법에 의거하여서는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로골적인 지배와 간섭책동이 더는 통할수 없게 된 조건에서 미국의 통치배들이 고안해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장과 인권옹호》타령이었다.

미제는 인권문제가 전인류적인 문제로 제기된 시대의 요구를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리용하려고 꾀하였다.

미제는 저들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수호자》로 미화분식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해주는것이 미국이 국제사회앞에 지닌 《의무》인듯이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에 대하여 부르짖으면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인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실현의 희생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초보적인 자격도 가지지 못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이다.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미국이라는 나라자체가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였던 인디안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고 잔악한 흑인노예무역을 통하여 자본의 시초축적을 이룩함으로써 조작된 인권유린국가이기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있으며 제4조에서는 《누구도 노예로 되거나 예속될수 없

다. 노예화와 노예매매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금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가 가장 잔인한 인권침해행위라는데 대하여 선언하였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며 발전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생겨날 때부터가 바로 인권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인간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면서 태어난 인권유린국가이다.

북아메리카식민지개척시기에 양키의 조상들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거나 멸족시키며 유럽대륙의 다른 나라들이 이미 차지하였던 식민지들을 무력으로 강탈하는 방법으로 령토를 팽창하였다. 짐승도 낫을 뿜힐 인간살육을 통하여 미국은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뉴욕, 뉴햄프셔, 조지니아, 메릴랜드,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델리오우, 노쓰캐롤라이너, 뉴저지, 싸우스캐롤라이너, 펜실바니아 등의 새로운 식민지들을 차지하고 《국가창건》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식민종무리들은 인디안에 대한 대량학살로부터 부족되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극도의 비인간적이고 범죄적인 흑인노예무역을 단행하고 그들에게 죽음의 고역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인권의 무덤우에 생겨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물질문명》을 창조해온 인권의 극악한 유린국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것부터가 언어도단이고 인류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는 침략전쟁을 가장 많이 감행하고있는 국가이기때문이다.

인권은 곧 국권이다.

사람들은 일정한 민족국가의 성원으로 되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따라서 국가주권과 개별적사람들의 사회적권리로서의 인권은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그러므로 국가자주권에 대한 유린행위,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은 인권에 대한 가장로골적이며 파렴치한 침해행위로 된다.

미국은 바로 현세계에서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가장 많이 감행하고있는 국권유린국, 인권말살국가이다.

미국의 력사는 침략전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미국은 전쟁과정에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끊임없는 전쟁을 통하여 팽창되어온 전쟁국가이다.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하여 생겨났고 국가형성이후 인디안에 대한 멸족전쟁과 령토팽창전쟁으로 불과 반세기 남짓한 짧은 기간에 국토의 면적을 국가형성당시의 38만 6 000 km<sup>2</sup>의 근 8배에 달하는 300만km<sup>2</sup>로 늘구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첫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전쟁으로 기록된 미국-에스빠냐전쟁을 비롯하여 1776년 《독립선언》발표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114차, 1950년대 조선전쟁으로부터 21세기 초엽 아프가니스탄전쟁까지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전쟁과 군사적간섭을 무려 160여차나 감행하였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벌려놓았던 모든 침략전쟁들은 어느것이나 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인권옹호》의 타령밑에 감행되었다.

미국이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명밑에 벌려놓았던 1950년대의 조선전쟁,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의 간판밑에 도발한 유고슬라비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그리고 리비아와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공격들은 어느것이나 다 국권유린전쟁, 인권말살전쟁들이었다.

유고슬라비아전쟁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미국이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하고있는 침략전쟁들은 모두 국권유린전쟁, 인권말살전쟁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미국은 유고슬라비아련방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알바니아분립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이 나라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벌려놓고 매일 평균 3 700만US\$ 이상을 탕진하며 9 095개의 군사 및 민간대상들에 2 300여차의 공중타격을 감행하였다. 전쟁기간 미군주도의 나토비행기들의 총출격회수는 2만 300회에 달하였으며 송이폭탄, 고도정밀미싸일, 대형특수폭탄과 같은 미국의 군수독점체들이 쏟아내는 각종 신형유도폭탄들, 지어 그 사용이 금지된 열화우라니움탄까지도 꺼리낌없이 사용하였다.

근 80일간에 걸쳐 감행된 군사적공습으로 유고슬라비아는 피의 란무장으로 변하였다. 약 2 000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6 0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100만명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나라의 90%지역의 전력공급망이 손상되고 교통시설은 만신창이 되었다. 300여개의 학교가 파괴되어 150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으며 100여개의 문화기념비들이 파괴 및 손상되었다.

종합된 위의 수자는 지난 세기말 발칸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의 인권말살전이었다는것을 적라라하게 고발해주고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가장 잔인한 인권유린범죄이다.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미국이 인간의 자주적인 존엄과 권리를 참답게 보장하여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책동을 세기를 이어가며 감행하여오고있는 극악한 인권유린국가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리상이며 참다운 인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가 인권의 요람이라면 자본주의는 인권의 무덤이다.

력사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이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의 탐욕적인 요구는 불필요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동반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짓을 다할수 있는 자본가계급의 특권이며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의 권리, 민족차별의 권리, 식민지 지배의 권리이다.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인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이 인류사회발전의 역사적총화이다.

인민대중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협력과 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인권을 보장받을수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어있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훌륭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 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것을 비롯하여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을뿐아

나라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세상에서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사는 유일한 인민으로 되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장애인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가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공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당과 국가가 따듯이 돌봐주고있다.

미국은 인류의 리상이며 참다운 인권보장의 미래가 담보되어있는 우리 공화국이 이 세상에 출현한 때로부터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세기를 이어가며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인권의 가장 악랄한 원쑤이다.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미제가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악랄하게 감행된것으로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생존권을 영원히 말살해버리려는 가장 파렴치하고 야만적인 인권유린범죄이다.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입은 정신적 및 물질적손실과 피해는 천문학적액을 헤아린다.

오늘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변함없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하려는 범죄적기도밑에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하고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있다.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옹호하고 보장하여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압살책동은 참다운 인권에 대한 가장 로골적이며 강도적인 유린행위로서 추호도 용서받을수 없는 인권범죄이다.

진보적인류는 인간의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이라는 인권유린국을 반드시 력사의 오물통에 처넣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부터 진정한 인권을 훌륭히 보장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갈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역세계 나아갈것이다.